

아테네 학당



〈아테네 학당〉 라파엘로, 1510년

중앙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보인다. 플라톤의 손은 하늘 위 이데아 세계를 가리키고, 현실을 중시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손은 땅을 가리키고 있다. 그림엔 안 보이지만, 저 정문에 플라톤은 이렇게 써 붙였다.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이 문을 들어서지 말라.” 계단 아래 오른쪽에, 컴퍼스를 들고 제자들에게 뭔가 열심히 설명하는 피타고라스의 모습도 보인다.

페이디아스를 비난하다

플라톤 : 이번에 페이디아스가 만든 〈아테나상〉 말일세. 신체 비례를 제멋대로 바꿔버렸더군. 실물하고 똑같아도 시원찮을 판에 일부러 왜곡하다니…….

아리스 : 예술이란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페이디아스 선생이 여신상의 머리를 실제보다 크게 만든 건, 밑에서 쳐다볼 때 머리가 작아 보이는 걸 막으려고…….

플라톤 : 그건 교묘한 눈속임일 뿐이야. 난 왜 요즘 조각가들이 눈을 즐겁게 하는 데만 골몰하는지 모르겠어. 세상은 어차피 이데아 세계의 모방일 뿐이지 않나. 그 그림자 세계의 감각적 외관이 그렇게 중요한가?

아리스 : 하지만 이 세상이 이데아 세계에서 나왔다는 건 상식적으로 줌…….

플라톤 : 상식 운운하려면 일찌감치 철학 공부 때려치우고 경영학과에 가서 장사나 배우게. 내 상식으론 자네가 그 좋은 머릿 가지고 밥 굶기 좋은 철학과에 왔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

아리스 : …….

피타고라스의 삼각형

플라톤 : 저기 피타고라스 선생이 그린 삼각형 좀 보게. 저게 완전할까?

아리스 : 아뇨, 아무리 정확히 그려도 몇 만분의 1의 오차는 있겠죠.

플라톤 : 하지만 선생이 그 유명한 '정리($a^2=b^2+c^2$)'를 얘기할 때, 그의 머리속에 든 직삼각형의 관념(이데아)만은 완전하겠지?

아리스 : 관념엔 오차가 있을 수 없죠.

플라톤 : 그럼 문젯네. 과연 불완전한 것에서 완전한 게 나왔겠나, 아니면 완전한 것에서 불완전한 게 나왔겠나? 가령 노트를 복사한다고 생각해보게.

아리스 : 아무래도 원본이 복사본보다야 완전하기 마련이죠.

플라톤 : 그렇다면 완전한 이데아 세계에서 불완전한 이 세상이 나왔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아리스 : 글썄요, 왜 불완전한 것에서 완전한 게 나올 수 없죠? 지금 선생은 바닥에 그려진 저 불완전한 삼각형으로, 제자들에게 완전한 삼각형의 개념을 설명하잖습니까. 선생이 저 불완전한 삼각형으로 그 유명한 정리를 설명할 때, 선생은 불완전한 그림에서 완벽한 직삼각형의 개념을 뽑아낸 게 아닌가요?

플라톤 : 거 참 신비한 노릇 아닌가요? 자넨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설명할 수 있나.

아리스 : 거기까진 아직…….

동굴 속의 죄수들

플라톤 : 그게 바로 자네의 한계야. 들어보게. 태어나기 전에 우리는 원래 저 하늘 위 이데아 세계에 살았다네. 하늘, 바다, 꽃과 나무, 거기선 모든 게 그것의 '개념'만큼이나 완전하지.

아리스 : 저 하늘에요?

플라톤 : 물론. 그 나라에 비하면 이 세계는 그림자에 불과해. 가령 동굴 밖에 누가 서 있고, 그 사람의 그림자가 동굴 벽에 비친다

생각해보게. 이승에 사는 우리는 동굴 속에서 그 그림자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죄수의 처지라 할 수 있지. 그 그림자가 사물의 참된 모습이라고 상식적으로 믿으며 말일세.

아리스 : 하지만 그걸 어떻게 아시죠? 직접 가보셨나요?

플라톤 : 사실 나도 죽었다 여드레 만에 깨어난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야. 그 사람 말로는, 그 나라와 이 세상 사이엔 '레테(망각)'라는 강이 있다더군.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는 그 강물을 마시는데, 그럼 이데아의 세계를 까맣게 잊어버리게 된단다?

아리스 : 그게 이 문제와 무슨 관련이 있죠?

플라톤 : 들어보게. 비록 우리가 이데아 세계를 까맣게 잊어버려도, 이 세계는 이데아의 그림자가 아닌가? 그러니 이 세상의 사물을 보면, 어디서 본 듯하다는 느낌이 들면서 어렴풋이 그 이데아가 떠오르게 되는 거지.

아리스 : 결국 피타고라스 선생이 불완전한 삼각형에서 완전한 개념을 뽑아낼 수 있는 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이데아를 봤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군요.

플라톤 : 아니면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나?

모방의 모방

아리스 : 개념을 '추상'하는 게 곧 이데아를 회상하는 거라……. 하지만 그게 <아테나상>하고 무슨 관련이 있죠?

플라톤 : 답답하긴, 가령 장인이 침대를 만든다 하세. 먼저 뭐가

필요하지? 무턱대고 톱과 망치를 휘두르면 침대가 만들어질까?

아리스 : 아니죠. 먼저 설계도가 있어야죠.

플라톤 : 그렇지. 장인의 머리속 설계도를 침대의 이데아라 부르기로 하세. 장인은 이 설계도에 따라 평생 수백, 수천 개의 침대를 만들어낼 걸세. 물론 침대들은 모두 이데아의 모방이겠지?

아리스 : 예. 그것도 물질이라는 불순물이 섞인 불완전한…….

플라톤 : 자, 이제 어떤 환쟁이가 붓과 물감으로 이 침대를 그린다고 하세. 그건 뭘하는 걸까?

아리스 : 당연히 침대를 모방하는 거죠.

플라톤 : 그렇지. 그나마 또 한번 불완전하게 말일세. 결국 예술이란 가상의 가상, 그림자의 그림자란 얘기 아닌가? 이렇게 예술은 진리의 세계에서 두 단계나 떨어져 있는 거라네. 알겠나?

가상과 진리

아리스 : 하지만 스승님, 예술이 이중 모방이라 해서 그게 꼭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걸까요? 오히려 그걸 통해 진리에 더 가까워질 수는 없을까요? $\sim(\sim A)=A$,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 되듯이 말입니다.

플라톤 : 글썄, 가상의 가상을 통해서 참에, 모방의 모방을 통해 원본에, 그림자의 그림자를 통해 이데아에 도달한다? 재미있군.

아리스 : 가령 파라시오스는 아프로디테를 그릴 때 여섯 명의 모델을 놓고 아름다운 부분만 따서 그렸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그 그

림은 비록 현실의 모델들을 모방했지만, 그 모델들보다 훨씬 더 완전한 게 아닐까요?

플라톤 : 물론 나도 예술이 진리를 전달할 수 있다고 믿네. 하지만 거기에 실물처럼 보이게 하려는 눈속임은 필요 없어. 예술이 진리를 전달하려면, 모름지기 시시각각 변하는 덧없는 외관이 아니라 사물의 영원한 본질을 낚아채야지.

아리스 : 어떻게요?

플라톤 : 가령 이집트나 우리나라 아르케익 시대의 조각을 보세. 거기엔 실물 같은 착각을 주는 알팍한 눈속임 따위는 없어. 인물들은 일시적이며 우연적인 모습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영원한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지. 형태는 기하학적으로 단순하고, 비례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수학적으로 정확하고 말일세. 바로 이거야말로 이데아 세계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이데아 세계를 상기시켜준다면야…….

미와 에로스

아리스 : 하지만 길을 막고 물어보시죠. 모두들 그 괴상한 조각들보다야 폴리클레이토스나 프락시텔레스 쪽이 더 아름답다고 할걸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게 인간의 자연스런 본성이니까요. 아무리 훌륭한 조각이라도 아름답지 않다면야…….

플라톤 : 본성? 그럴지도 모르지. 인체의 아름다움에 매혹되는 걸 탓하진 않겠네. 어차피 그건 영혼의 성장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단계니까. 하지만 거기 머물러버린다면 문제가 되지.

아리스 : 무슨 말씀이죠?

플라톤 : 아까 말했듯이, 인간은 누구나 미를 사랑한다네. 그걸 '에로스'라 부르세. 에로스는 슬기로운 아버지와 무식하고 아둔한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미와 덕과 지혜를 온전히 갖추지 못했어. 말하자면 반쪽이인 셈이지. 그래서 그는 항상 나머지 반쪽을 갈망한다더군. 그러니 완전성을 추구하는 인간의 마음에 그 신의 이름을 붙이는 것도 그리 나쁜 생각은 아닐걸세.

아리스 : 뭐, 아무래도 좋습니다.

플라톤 : 어쨌든 에로스의 충동에 따라 우리는 먼저 인체의 아름다움에 매료된다네. 이걸 아주 자연스런 일이지. 하지만 육체의 아름다움보다야 영혼의 아름다움 쪽이 훨씬 더 고상하지 않겠나?

아리스 : 그야 물론이죠.

플라톤 : 다음으로 우리는 정신의 아름다움을 알아야 하네. 텅텅 빈 머리통에 얼굴만 잘생긴 사람보다야 좀 안 생겼어도 고상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더 아름답다고 해야겠지?

아리스 : 소크라테스 선생님요? 푹 튀어나온 똥배에 납작코에…….

플라톤 : 펍! 다음은 미(美)의 이데아야. 이거야말로 감각적인 게 하나도 안 섞인 순수한 아름다움으로,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은 사실 이걸 불완전하게 흉내낸 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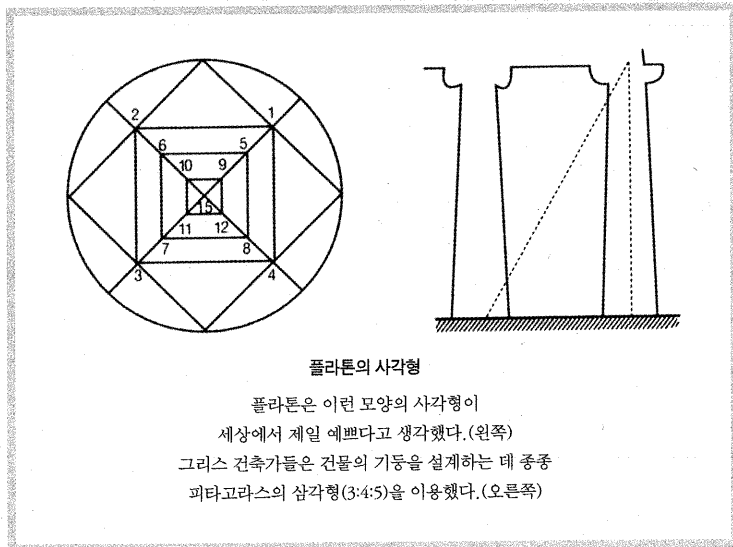
아리스 : 더 올라가야 하나요?

플라톤 : 아니, 다 왔네. 마침내 에로스의 운동은 여기서 가장 높은 목표에 도달한다네. 이때 우리 마음엔 엑스터시에 가까운 벽찬

기쁨이 솟아오르는데, 이진 폴리클레이토스의 조각이 주는 감각적 쾌감 따위와는 차원이 다르지. 이렇게 감각적 요소에서 벗어나 순수한 정신적 세계로 올라가면서 우리는 육체에 사로잡힌 영혼을 정화하여 영원한 삶에 다다른 거야. 알겠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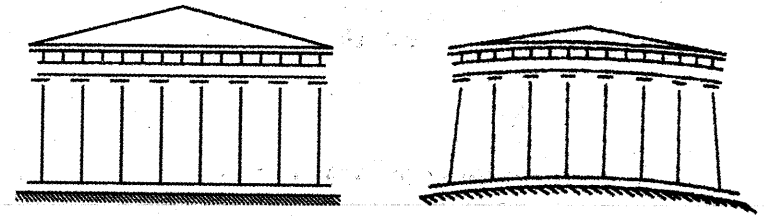
척도와 비례

아리스: 하지만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요? 결국 미의 이데아에 가까운 사물일수록 아름답다는 얘긴데, 도대체 뭐가 이데아에 가까운 건지 판단할 기준이라도 있나요? 이데아를 직접 보지 못한 이상에야.



플라톤의 사각형

플라톤은 이런 모양의 사각형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생각했다. (왼쪽)
 그리스 건축가들은 건물의 기둥을 설계하는 데 종종 피타고라스의 삼각형(3:4:5)을 이용했다. (오른쪽)



그리스의 예술가들이 일부러 기하학적 정확성에서 일탈한 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먼저 인간의 등근 눈엔 정확한 직선이 오히려 튀어져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건물의 선을 일부러 곡선으로 만들었다. 둘째는 기하학적 정확성이 뭔가 딱딱하고 죽은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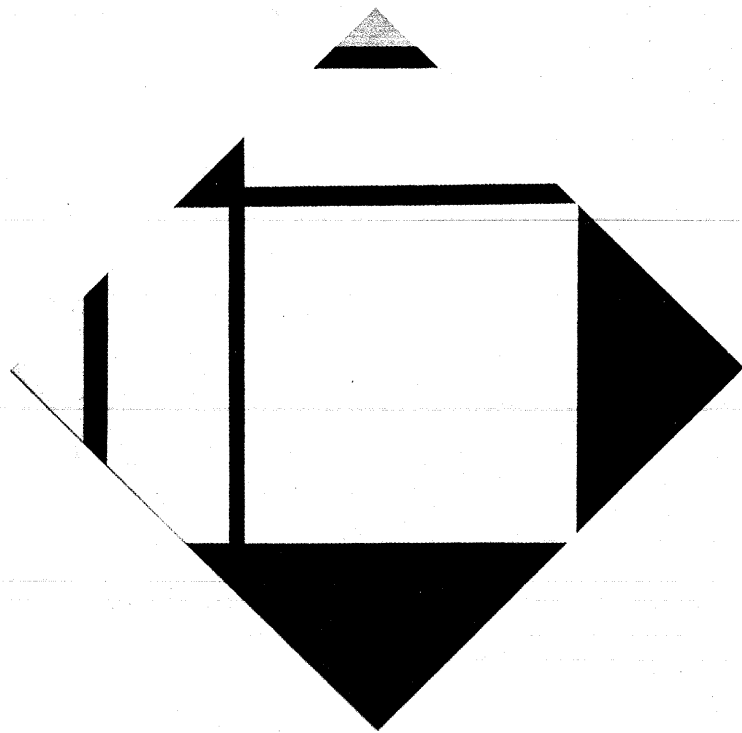
플라톤: 한번 생각해보게. 미의 이데아가 현상 세계에서 나타날 때,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나?

아리스: 글썄요.....

플라톤: 그건 바로 정확한 '척도와 비례'야. 자넌 구체적인 걸 좋아하니,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지.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들, 예를 들어 직선이나 원, 그리고 이것들을 이용해 자로 잰 듯이 만들어낸 평면이나 입체, 이거야말로 미의 이데아에 가장 가까운 순수한 형태들이지. 사실 미를 보는 건 감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오히려 수학적 직관에 가까운 거지.

아리스: 스승님께서 이집트와 아르케익의 조각을 좋아하시는 건 그 때문이군요. 하지만 조각가들이 기술이 부족해 인체를 마징가 제트 같이 만들던 시대는 이미 오래전에 지나지 않았습니까? 스승님의 미감(美感)은 시대에 뒤떨어진 게 아닐까요?

플라톤: 과연 그럴까? 다음 그림을 보게. 이런 그림을 후세엔



〈파랑, 노랑, 빨강색과 마음모꼴〉
 몬드리안, 1921~1925년

'추상'이라고 부르는 모양이야. 바로 이런 그림이 아이디어에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지. 어떤가?

아리스 : 도대체 뭘 그린 거죠?

플라톤 : 촌스럽긴. 만약 그 시대에 그런 질문을 했다간 무식하단 소릴 듣게 될걸세. 내가 보기에 자네 취향은 아주 고전주의적이지만, 아마 후세 사람들은 자네의 미감을 촌스럽다고 할걸?

아리스 : 하지만 수학적이고 기하학적으로 너무 정확한 형태는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다면데요. 가령 프락시텔레스는 폴리클레이토스의 엄격한 인체 비례에 약간의 일탈을 줌으로써 비로소 '미의 양식'을 낳지 않았습니까? 우리 건축가들이 신전 기둥의 3분의 2 지점에서 일부러 도들림을 주는 것도 그 때문이구요. 수학적으로 정확한 비례는 아주 차갑고 딱딱해 보인다고요? 정보 이론에선 이걸 '엔트로피와 네그엔트로피의 최적의 관계'라고…….

플라톤 : 자네 의견엔 찬성할 수 없네. 그건 두 가지 이유에선데, 첫째는 자네의 그 유식한 말투가 싫어서고, 둘째는 '실제로 아름다운 것' 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지. 알겠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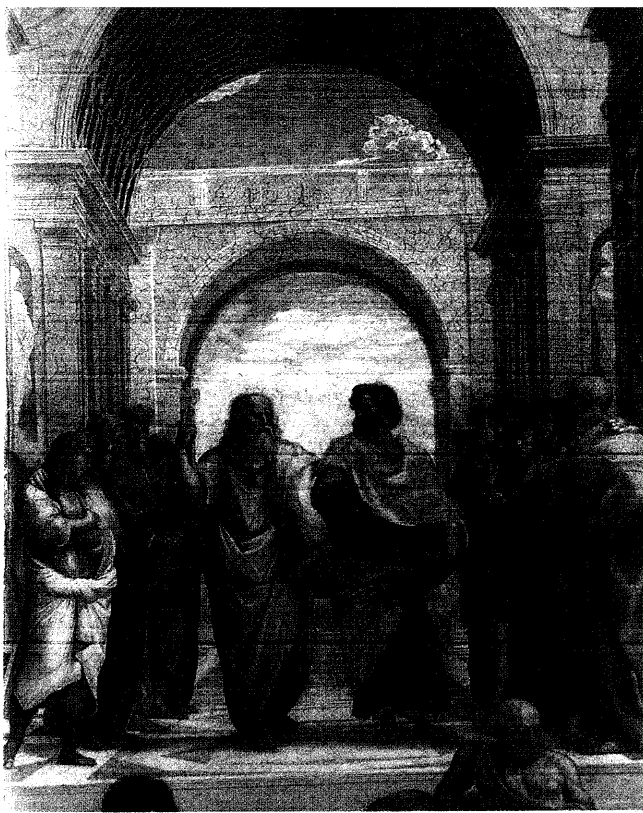
아리스 : 하지만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이 무슨 소용이죠?

(이때 한 젊은이가 길을 막아선다.)

라파엘로 : 고매하신 두 분, 도대체 어딜 가시는 겁니까?

플라톤 : 그대는 누군데 함부로 길을 막는가?

라파엘로 : 저는 로마인의 후손으로, 이 그림을 그린 라파엘로라



〈아테네 학당〉(부분)



는 사람입니다. 사실 두 분은 저의 창조물이죠. 제가 이 그림을 못 그리면 두 분이 방금 나누신 대화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플라톤 : 아, 르네상스의 그 유명한 환쟁이? 그런데 2,000년 뒤에 야 태어날 자네가 왜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나?

■ 플라톤, 《국가》(박종현 옮김), 서광사, 1997.

■ 플라톤, 《향연》(박병덕 옮김), 육문사, 2000.